

## 사립대학 적립금 11조 원의 질문

### ◆ 들어가며

- 우리 고등교육계는 현재 심각한 역설에 직면해 있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음
- '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사립대학의 총 적립금 규모는 1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단순한 재무적 현상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 국회 간의 깊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음
- 이 브리프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사립대학 적립금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함. 순서는 ① 적립금 법적근거와 본래 목적, ② 데이터로 본 적립금, ③ 적립금 규모와 교육환경 개선의 상관관계, ④ 해외대학 적립금 운용 사례, ⑤ 관계기관의 역할임

### ◆ ① 적립금 법적근거와 본래 목적

- **법적 근거** 사립대학 적립금의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 <표1>과 같이 각 법령에서 사립대학 적립금의 재원, 적립목적,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법적으로 적립금은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원금보존형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 사용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적립금으로 구분됨

[표1] 사립대학 적립금의 법적 근거

법령명	사립대학 적립금 관련 조항
사립학교법	- 제32조의2(적립금), -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조(정의), -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 제34조(감가상각)

- **본래 목적** 무분별한 자금 축적이 아니라, 대학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음

→ **문제의 시작** 적립금 문제의 핵심에는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기만 하고 교육환경 개선 투자는 망설이고 등록금은 대학 재정을 위해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있음

- 특히, 문제의 핵심에는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있음. 이는 교육용 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건축적립금'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그 규모는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고 있음

\*「사립학교법」제32조의2(적립금)제1항 후단 :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이는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적립하는 것은 막되(등록금 보호), 교육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 하락분(감가상각비) 만큼은 그 시설의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 현실에서는 대학이 등록금 수입을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경로로 인식되어 비판을 받고 있음

## ◆ ② 데이터로 본 적립금

→ **적립금 규모와 증가 추세** 사립대학 적립금의 규모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71개 사립대학이 보유한 총 적립금은 약 11조 5,934억 원으로, 전년대비 4,287억 원(3.8%) 증가했음

[표2] 대학 적립금 현황 및 적립·인출 현황

(단위: 억 원)

회계연도	구분	당해 적립액(A)	당해 인출액(B)	적립 대비 인출 비율(B/A)	누적 적립금
2024	일반대학	11,647	8,046	69.1%	90,891
	전문대학	2,278	1,534	67.3%	25,043
합계		13,925	9,580	68.8%	115,934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적립금 미보유 대학(대상교의 13.4%)을 제외해도 적립금 보유 상위 50% 대학이 전체 적립금의 95.4%를 차지하고 있음

[표3] '24회계연도 대학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교 현황

(단위: 억 원)

순위	학교명	당해 적립액(A)	당해 인출액(B)	적립금 증감액(A-B)	적립 대비 인출 비율(B/A)	누적 적립금(총액 대비 비율)
1	홍익대학교	430	96	334	22.4%	8,232
2	연세대학교	1,058	693	365	65.5%	6,548
3	이화여자대학교	585	381	204	65.1%	6,328
4	고려대학교	1,182	840	342	71.0%	4,530

순위	학교명	당해 적립액(A)	당해 인출액(B)	적립금 증감액(A-B)	적립 대비 인출 비율(B/A)	누적 적립금(총액 대비 비율)
5	수원대학교	132	-	132	0.0%	4,158
6	성균관대학교	379	578	△199	<b>152.6%</b>	3,768
7	청주대학교	188	59	129	31.6%	2,775
8	계명대학교	174	14	160	7.8%	2,769
9	한양대학교	467	150	317	32.2%	2,711
10	동덕여자대학교	110	107	3	96.8%	2,092
11	숙명여자대학교	129	163	△34	<b>126.3%</b>	2,041
12	호남대학교	116	-	116	0.2%	1,937
13	영남대학교	199	79	120	39.9%	1,711
14	국민대학교	135	191	△56	<b>141.1%</b>	1,519
15	울지대학교	248	287	△39	<b>115.9%</b>	1,442
16	경희대학교	273	283	△10	<b>103.9%</b>	1,399
17	승실대학교	177	84	93	47.5%	1,350
18	진주보건대학교	45	-	45	0.0%	1,156
19	연성대학교	51	18	33	35.5%	1,130
20	대구대학교	77	58	19	75.8%	1,082
상위 20개교 평균		<b>308</b>	<b>204</b>	<b>104</b>	<b>66.3%</b>	<b>2,934</b>
1그룹(1~25%) 68교		<b>10,534</b>	<b>7,455</b>	<b>3,079</b>	<b>70.8%</b>	<b>92,874(80.1%)</b>
2그룹(26~50%) 68교		<b>2,244</b>	<b>1,253</b>	<b>991</b>	<b>55.8%</b>	<b>17,681(15.3%)</b>
3그룹(51~75%) 68교		<b>981</b>	<b>738</b>	<b>243</b>	<b>75.2%</b>	<b>4,644(4.0%)</b>
4그룹(76~100%) 67교		<b>166</b>	<b>134</b>	<b>32</b>	<b>80.7%</b>	<b>735(0.6%)</b>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접수자료

- 교육보단 건물에 대한 선호 적립금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의 선호가 명확히 드러남.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건축적립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반대학 적립금의 46.6%(42,381억 원), 전문대학의 경우 무려 71.4%(17,888억 원),가 건축적립금으로 쌓여 있음
  -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학, 연구 적립금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전문대학이 장학적립금을 더 사용하는 등 교육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표4] 대학 적립금 유형별 적립·인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적립금 종류	당해 적립액(A)	당해 인출액(B)	적립 대비 인출 비율(B/A)	누적 적립금
일반대학	건축	4,494	3,292	73.2%	42,381
	장학	1,209	802	66.3%	14,851
	연구	913	894	97.9%	7,391
	퇴직	191	107	56.0%	975
	특정목적	4,839	2,951	61.0%	25,294
	소계	<b>11,647</b>	<b>8,046</b>	<b>69.1%</b>	<b>90,891</b>

구분	적립금 종류	당해 적립액(A)	당해 인출액(B)	적립 대비 인출 비율(B/A)	누적 적립금
전문대학	건축	1,413	988	69.9%	17,888
	장학	90	105	116.3%	2,402
	연구	12	3	27.0%	318
	퇴직	87	91	104.8%	608
	특정목적	677	347	51.3%	3,826
	소계	2,278	1,534	67.3%	25,043
합계		<b>13,925</b>	<b>9,580</b>	<b>68.8%</b>	<b>115,934</b>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접수자료

→ 보수적 적립금 운용 「사립학교법」제32조의2(적립금)제3항에 따르면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투자를 할 수 있음

- (안정자금 투자) 누적적립금('24회계연도 결산, 11조 5,934억 원) 중 15,807억 원(13.6%) 만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정기에금 등에 예치하여 안정적 투자에 관리하는 모습을 보임

[표5] 최근 5년 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교, 억 원)

구분	'20회계	'21회계	'22회계	'23회계	'24회계
투자 대학 수	57	60	58	59	64
투자원금(A)	16,130	16,750	16,450	16,427	15,807
평가액(B)	16,316	16,363	15,614	15,961	15,435
평가손익(B-A)	<b>186</b>	<b>△387</b>	<b>△836</b>	<b>△466</b>	<b>△372</b>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 (수익증권 투자) 유가증권의 유형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벤처기업 투자로 이어지며, 채무증권(62.6%), 수익증권(31.0%), 이 대부분을 차지함
- 채무증권의 경우 만기 보유 목적의 국공채 또는 은행채 등의 매입형태로 평가차액이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형태가 많으며, 수익증권의 경우 펀드, 주식 등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손익차이가 상이함

[표6] '24회계연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억 원)

구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 증권	벤처기업 투자	계
투자원금(A)	9,895	664	4,894	308	5	41	15,807
평가액(B)	9,909	539	4,634	308	5	41	15,435
평가손익(B-A)	<b>14</b>	<b>△125</b>	<b>△260</b>	-	-	-	<b>△372</b>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 ◆ ③ 적립금 규모와 교육환경 개선의 상관관계

→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적립금이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상관관계는 분석이 필요한 주제임. 앞서 언급한 누적적립금 상위 20개교의 '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표7>과 같음

- '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49%였음. 전체 대학의 약 73%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 중 적립금이 높은 대학들 또한 등록금 인상을 하였고 그 수준은 상한선의 가까운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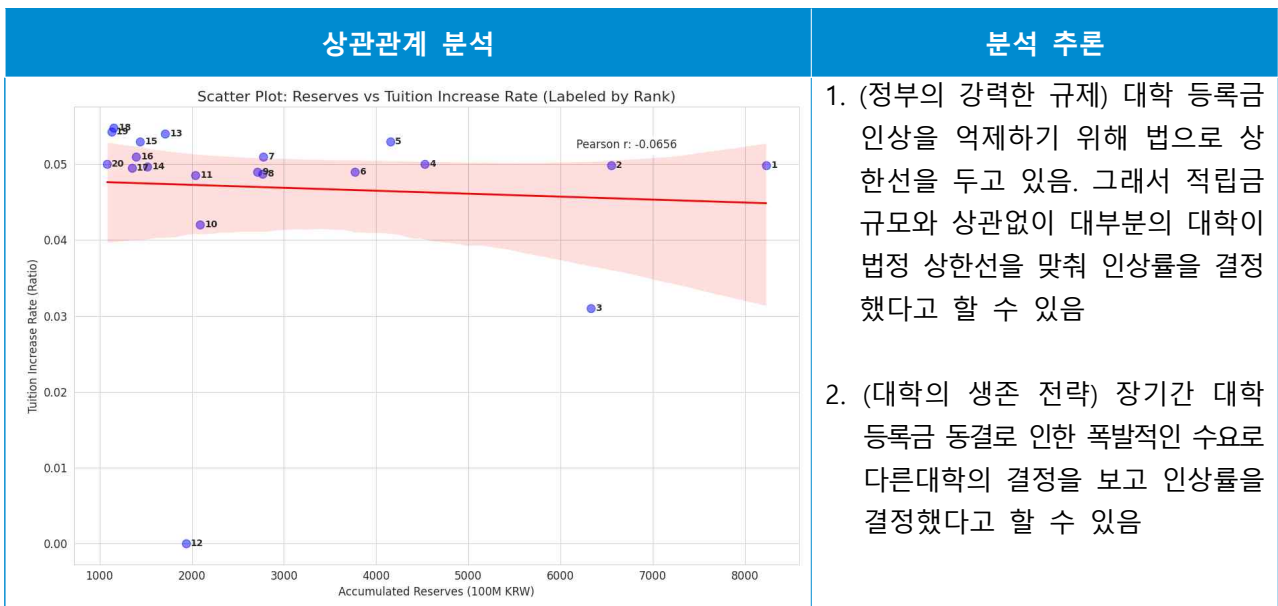
[표7]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교의 등록금 인상률

순위	학교명	인상률	순위	학교명	인상률
1	진주보건대학교	5.48%	11	연세대학교	4.98%
2	연성대학교	5.43%	12	국민대학교	4.97%
3	영남대학교	5.40%	13	승실대학교	4.95%
4	수원대학교	5.30%	14	성균관대학교	4.90%
5	울지대학교	5.30%	15	한양대학교	4.90%
6	청주대학교	5.10%	16	계명대학교	4.87%
7	경희대학교	5.10%	17	숙명여자대학교	4.85%
8	고려대학교	5.00%	18	동덕여자대학교	4.20%
9	대구대학교	5.00%	19	이화여자대학교	3.10%
10	홍익대학교	4.98%	20	호남대학교	0.00%

※ 출처 : 각 대학별 예산서 및 부속서류

-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과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r) : -0.06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음을 의미함



→ **적립금이 많은 대학의 시설 투자는?** 적립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대학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이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25회계연도 자금예산서를 바탕으로 시설관리비,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을 합한 금액을 도출한 결과 <표8>과 같으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시설투자에 적극적임

[표8]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교의 시설투자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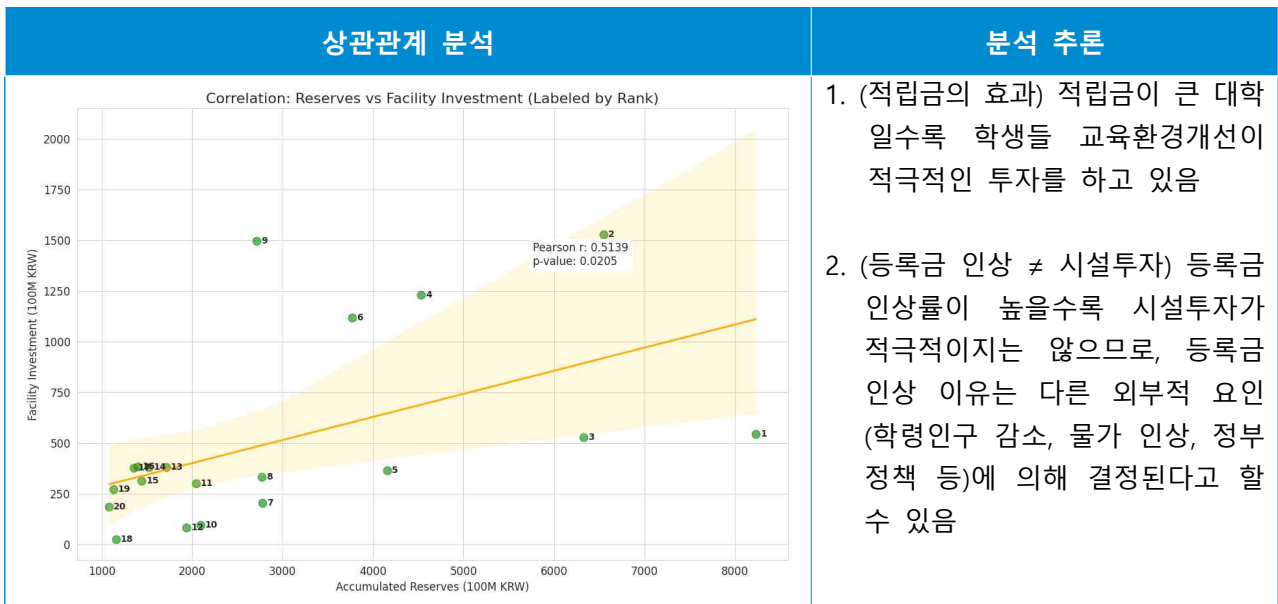
순위	학교명	시설투자 규모	순위	학교명	시설투자 규모
1	연세대학교	1,529	11	수원대학교	363
2	한양대학교	1,494	12	계명대학교	331
3	고려대학교	1,231	13	울지대학교	312
4	성균관대학교	1,117	14	숙명여자대학교	299
5	홍익대학교	543	15	연성대학교	272
6	이화여자대학교	528	16	청주대학교	204
7	경희대학교	383	17	대구대학교	185
8	영남대학교	380	18	동덕여자대학교	96
9	국민대학교	379	19	호남대학교	83
10	승실대학교	378	20	진주보건대학교	24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접수자료

\* 시설투자 규모 : '25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 시설관리비 +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과 시설투자 예산이 높은 대학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r) : 0.513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관계수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음을 의미함



## ◆ ④ 해외대학 적립금 운용 사례

### → 미국

- 미국 대학 적립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와 선진화된 운용 방식을 자랑하며, 대학 재정의 핵심 축을 담당함

[표9] 미국 대학 적립금 현황

구분	학교명
1. 적립금 규모 (주요대학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버드 대학교 약 507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li> <li>• 예일 대학교 약 407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li> </ul>
2. 적립금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 졸업생, 재단, 기업의 기부금이 절대적</li> <li>• 투자 수익 :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이 원금이 재투자</li> </ul>
3. 적립금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운영 예산에 전출, 적립금 총 자산의 4~5% 수준(수익률은 연 10% 이상)</li> </ul>
4. 적립금 운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자산 운용 : HMC(하버드), YIO(예일) 등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전문 투자 운용 회사가 전담 운용</li> </ul>

※ 출처 : NACUBO 2024 study

### → 영국

-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 적립금과 개별 단과대학 적립금이 혼재된 형태를 띠

[표10] 영국 대학 적립금 현황

구분	학교명
1. 적립금 규모 (주요대학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스퍼드 대학교 약 60억 파운드(한화 12조 원)</li> <li>• 케임브리지 대학교 약 50억 파운드(한화 10조 원)</li> </ul>
2. 적립금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백년간 축적된 부동산 자산</li> <li>• 기부금 : 미국식 모금 캠페인을 도입하여 동문 기부를 확대</li> </ul>
3. 적립금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운영 예산에 전출, 적립금 총 자산의 4% 수준(수익률은 연 9% 이상)</li> </ul>
4. 적립금 운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단과대학의 자금을 모아 미국식 별도 투자법인을 통해 전담 운용</li> </ul>

※ 출처 : CASE UK Rerort 2024

### → 일본

- 최근 정부 주도로 '10조 엔 대학 기금'을 조성하여 대학 재정 구조의 대전환을 시도함

[표11] 일본 대학 적립금 현황

구분	학교명
1. 적립금 규모 (주요대학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이오 대학 약 1조 6백 엔(한화 약 10조 원)</li> <li>• 와세다 대학 약 571억 엔(한화 약 0.5조 원)</li> </ul>
2. 적립금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조 엔 대학 기금 : 정부 출자금</li> <li>• 등록금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 기부금과 산학협력 수익까지 확대</li> </ul>
3. 적립금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적립금 : 별도 사용기준 없음</li> <li>• 정부 적립금 : 정부가 선정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액이 결정됨</li> </ul>
4. 적립금 운용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형태로 정부 산하기관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독립적으로 운용</li> </ul>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보고서 2024

→ 미국·영국·일본 대학 적립금 시사점 선진 사례와 우리나라 대학 적립금 운용 현황을 비교했을 때 3가지 핵심 시사점을 도출함

- ① (적립금 재원 패러다임 전환) 미국과 영국 대학의 적립금 원칙은 기부금과 투자 운용 수익임. 현재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에서 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은 재무적 한계가 명확하고 갈등을 조장하므로 적립금 재원을 다각화 하고 일본의 정부 주도 방식도 고민이 필요함
- ② (적극적 투자로 인플레이션 헷지) 미국과 영국 대학의 투자의 기본 방침은 “안전 지향”이 아니라 “구매력 보전”임. 즉, 물가가 3% 오르면, 최소 3% 이상 수익을 창출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임
-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1금융권 예금(원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하며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가는 실질적 마이너스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 대학의 투자 전문성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OCIO 도입을 활성화하여 ‘중위험 중수익’구조로 전환이 요구됨
- ③ (규모의 경제) 미국, 영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적립금의 규모를 키워 통합 운용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용중임. 우리나라 대학의 개별 적립금 규모가 평균적으로 약 300억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 대학 개별적으로 운용을 해봐야 행정비용만 소요되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한국형 통합 적립금 펀드를 조성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일본의 대학 펀드 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강력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 ◆ ⑤ 관계기관의 역할

→ 정부의 역할 적립금과 관련된 가이드를 안내하여 사립대학 적립금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① (적립금 적정 규모 설정) 건축적립금은 건물 잔존가치의 80% 한도로 적립액을 제한하여 누적 적립금 감소 및 교육시설 등 투자 유도함. 장학적립금은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당해 연도 지출을 유도하여 학생에 대한 지출을 늘림

- ② (주요 사업과 연계 강화) 대학평가인증 지표로 활용하여 직접 교육비 투자 확대, 재정진단 시 재정건전대학으로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았으나, 교육투자, 교육의 질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학 유형을 재정건전(자율개선권고) 대학으로 신규 지정

→ **국회의 역할** 입법을 통해 적립금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적립금 운용을 강화할 수 있음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확대) 기금운용심의회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김민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25.10월 가결)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전문성과 기금을 활용하여 적립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적립금 투자풀을 만들어 전문적인 투자효과를 이룰 필요가 있음

- ① (적립금 실태조사 실시) '26년부터 모든 사립대학의 적립금 실태조사 실시, 법령 위반사항 \*등을 서면전수 점검 후 법령 위반 및 적립금 적립·지출 상위교 등으로 기존으로 일정 수 이상의 현장 실태점검 대상교 선정(매년 30교 이상)

\* 감가상각비 외 등록금 건축적립, 증권/벤처기업 적립금 투자 한도 외 투자 등

- ② (사립대학 적립금 통합 펀드 운용) 일본의 적립금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사학진흥기금 재원에 사립대학 적립금을 추가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수행하여 적립금의 공공성 제고, 수익률 향상, 대학행정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여 국가 전략기금으로 역할 강화함